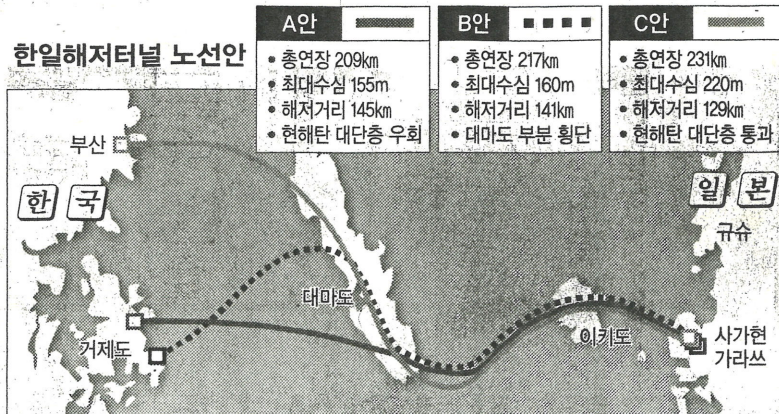




韓·日 해저터널 추진 본격화

부산시, TF팀 구성... 동북아 교통망 구축 논의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온 한일 해저터널 건설 논의가 한일 관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동남권(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동북아복합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발연은 최치국 도시창조본부 선임연구위원을 단장으로 김형균 정책협력처장, 금성근 지식경제본부 선임연구위원 등 교통, 물류, 사회·문화, 경제 분야 전문가 8명으로 '한일 해저터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부발연 TF팀은 오는 12월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담은 '국제물류 교통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부발연은 또 다음달 중으로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교(3.7km)의 해저침매터널공사를 맡고 있는 대우건설의

모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접촉,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는 초광역적 국제상황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저터널 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는 민간 분야에서 이용훈 일신설계 회장이 지난해 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연구회를 발족시켜 활동 중이다.

일본은 민간 차원의 일한해저터널 연구회에 이어 지난 3월 일본 자민당 규슈지역 중의원 14명을 중심으로 일한해저터널추진동맹을 발족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천주평화연합(UPF) 문선명 총재가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며 첫번째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후 일본 측 연구기관인 일한터널연구회와 건설사업단이 설립돼 지금까지 해저지질조사 등을 진행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世界日報

2008年6月30日

日韓海底トンネル推進本格化

釜山市、TF チーム構成

これまで民間レベルで進められてきた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議論が日韓それぞれ管轄地方政府のレベルで本格化している。

釜山市と釜山発展研究院は、日本の福岡と韓国の東南圏（釜山・慶尚南道）地域を繋ぐ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と関連する北東アジア複合交通網構築というレベルで研究に着手したと 29 日明らかにした。

そのため釜山発展研究院はチェ・チグ都市創造本部選任研究委員を団長とし、キム・ヒョンギョン政策協力署長、クム・ソングン知識経済本部選任研究委員など交通、物流、社会・文化、経済分野の専門家 8 人で「日韓海底トンネルタスクフォース (TF) チーム」をつくった。

釜山発展研究院の TF チームは来る 12 月までに 1 次報告書を提出し、国内外の専門家が参加する中で北東アジア物流の中心都市としての役割と政策方向を含む「国際物流交通都市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計画だ。

釜山発展研究院はまた、来月中に釜山～巨済を繋ぐ巨加大橋(3.7km)の海底沈埋トンネル工事を請負う大宇建設の親会社である錦湖アジアナグループ側と接触し、日韓海底トンネルの事業妥当性を議論する予定だ。

ホ・ナムシク（許南植）釜山市長は「国境の概念がなくなる超広域的国際状況に対処し、経済発展をはかるために海底トンネルの効果などの研究に着した」と話した。

これに関連し、国内では民間分野でイ・ヨンフム（李龍欽）一信設計会長が昨年、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会を発足させ活動中だ。

日本では民間レベルの日韓海底トンネル研究会に続き、去る 3 月に自民党の九州地域の衆議院議員 14 人を中心に日韓海底トンネル推進同盟を発足した。

日韓海底トンネルは 1981 年、宇宙平和連合 (UPF) ムン・ソンミョン（文鮮明）総裁が国際平和高速道路の建設を提唱し、その最初の事業として提案した。その後日本側の研究機関である日韓トンネル研究会と建設事業団が設立され、これまで海底地質調査などを行った。